

석유화학, 신입사원 채용 19% 확대

상의, 500대기업 업종 중 유일하게 2자리수 ... 대부분 업종은 감소세

2007년 채용시장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잠코리아와 공동으로 매출액 순위 500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<2007년 500대기업 일자리 기상도>에 따르면, 500대기업들의 2007년 신규 채용규모는 4만9602명으로 2006년 채용 예상규모(5만2123명)보다 5.1%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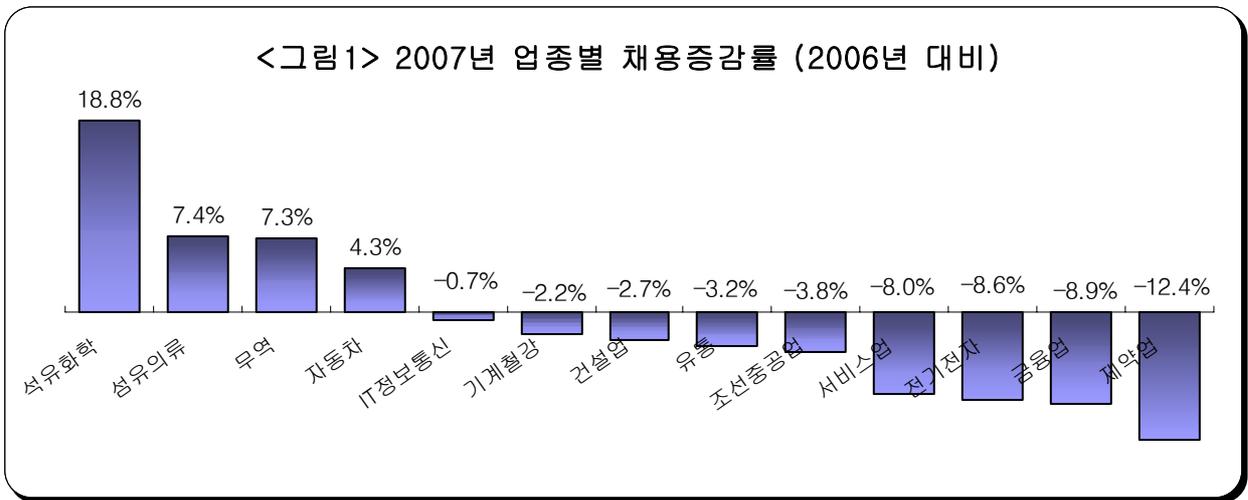
응답기업의 57.8%는 <2007년에 채용계획이 있다>고 답했으며 <채용계획이 없다>는 기업은 13.7%로 나타났다.

특히, 10개 중 3개(28.5%) 정도가 아직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2007년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일자리 수요전망이 5.1%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의 관계자는 "상당수 기업들이 2007년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인력 채용규모를 조심스럽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"며 "환율, 유가 등 대외여건, 복핵 리스크 등이 2007년 고용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"고 해석했다.

업종별 채용은 석유화학(18.8%), 섬유·의류(7.4%), 무역(7.3%), 자동차(4.3%) 업종에서 2006년보다 늘어나는 반면 제약(-12.4%), 금융·보험(-8.9%), 전기·전자(-8.6%)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업종별 채용규모는 전기·전자(1만6659명), 금융·보험(4965명), 건설(4325명), IT·정보통신(3084명), 조선·중공업(2715명), 유통(2450명), 자동차(2345명), 석유·화학(2202명) 등으로 집계됐다.



한편,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500대기업들은 지원자들의 근무의욕(35.7%)을 가장 중시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전공(30.8%),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(15.1%), 어학능력(12.0%), 자격증(6.4%)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.

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이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는 업무를 통한 비전 제시라고 답한 기업이 58.4%로 과반을 훨씬 넘었으며 보수(14.8%), 고용 안정성 보장(14.8%), 복리후생(10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청년실업문제 해소방안으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(25.7%), 사회적 일자리 창출(25.2%), 기업 투자 확충(23.8%),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(21.5%) 등을 꼽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04>